

최승호

쉽게 가는 정치학 강의계획서

3순환 핵심 미션 :

“내용정리 - 암기 - 답안적용”으로 연결되는 고득점을 위한 선순환의 확립!

“반복 출제되고 있는 핵심 논점의 요약과
정치학 전체 내용을 연결할 수 있고 출제 가능성 높은 최근 주요 이슈까지
사례를 통해 정리하고,
답안작성에 유용한 다양한 팁(Tip) 내용을 확인하는 최종마무리용 강의!”

■ ■ 담 당 최 승 호

■ ■ 강의일정 2016년 5/16(월) ~ 6/2(목), 총 16회

■ ■ 시 간 [오후 실강반]: 개강일과 종강일은 시험없이 1시40분부터 강의진행
(시험) 1시 ~ 2시10분 / (강의) 2시20분 ~ 5시40분
[익일 오전영상반]: 개강일과 종강일은 시험없이 8시40분부터 강의진행
(시험) 8시 ~ 9시10분 / (강의) 9시20분 ~ 12시40분

■ ■ 강의교재 쉽게 가는 정치학 요약서: 실전편(최승호, 학원교재, 실비제공)
- 반복 출제되고 있는 핵심 논점의 요약정리
- 최근 한국 정치에서 부각되는 주요 이슈를 사례를 통해 정리
- 답안작성에 유용한 다양한 팁(Tip) 내용정리

■ ■ 강의특징 1. 수험 정치학 접근방법의 기본(ABC) 다시 잡기! : 준비 [수업내용 진행]
1) 1단계 : 흐름 이해를 통한 주소 확인(Address)
2) 2단계 : 내용 정리와 사례 적용을 통한 블록 완성(Bloc)
※ 블록(Bloc)은 정치학의 수평 흐름과 수직 흐름을 이어주는 교량
3) 3단계 : 답안 작성을 통한 문장구성 연습(Construction)
2. 수험 정치학 접근방법의 기본(ABC) 다시 잡기! : 적용 [합격수기(뒷면) 참조]

최승호 선생님께서는 수업시간에 정리한 내용을 복습할 때는 기출문제를 옆에 두고 보면서, 이 내용을 어떤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이지만 (선행학습이 되지 않은) 1년 차에는 그 말대로 따라 하기가 쉽지 않았다. 주제 하나하나가 단편적으로 보였고, 이 주제가 어디에 속하고 다른 주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한 주제 두 번 정도 기출문제 초안을 작성해보면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해보았는데 주소를 모르니 배운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 논리적 연결성이 빈약한 초안만 작성하게 되었다.

위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은 2년 차가 되어 그 동안 배웠던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보면서였다. 배운 내용이 뭔가 뒤죽박죽 정리된 느낌이어서 1순환 동안 수업을 들으며 여태까지 순환별로 필기한 수업노트를 종합하여 하나의 노트로 정리하였다. 내용을 정리할 때는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정치학 과목의 선거부문을 정리할 때, 기출문제를 보고 투표행태나 선거제도 등으로 주제가 비슷한 문제끼리 묶은 다음, 문제들이 공통되게 묻는 것을 답안에 쓸 수 있는 키워드 형식으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논문을 보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나서 적합한 논문을 찾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정리할 때는 논문을 보며 답안에 쓰기 좋은 구절이나 통계수치, 학자 한마디를 옆에 같이 적어두었다. 처음에는 그때까지 받은 논문의 부피가 커서 정리할 양이 많다고 생각했으나 정리하고 보니 순환마다 (주제가) 겹치는 논문이 많아서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았다. 또한 공공선택론이나 신제도주의 같이 사회과학의 공통된 학설들은 행정학, 정치학, 그리고 정책학 중 하나의 과목에서만 정리를 잘 해두면 되므로 정리할 분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정치학(행정학이나 정책학 포함)을 정리해두면, 첫째, 배운 내용을 한눈에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둘째,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제의 위치나 주제 간의 연결성을 파악하게 되고, 셋째, 기출문제를 풀 때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므로 답안 구성이 쉬워지고, 넷째, 내용 암기가 보다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2년 차 2순환을 시작할 때 즈음 서브정리가 완성되어서 이후에는 서브만 보고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였다. 답안 작성 시에는 서브에 정리된 키워드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답안을 구성하니 초안을 작성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고 부가적으로 암기도 할 수 있었다.

3순환에는 매일매일 학원에서 답안을 썼는데, 1주에 두세 번 정도 답안에 대해 최승호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았고, 돌아와서는 지적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답안을 썼다. 답안을 다시 써보는 것은 3순환이 되어야 처음 해보았는데 더 일찍 활용했다더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같은 문제에 대해 답안을 반복적으로 써보면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출제될 때 보다 깔끔한 논리로 답안을 쓸 수 있다. 또한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은 최신 이슈들을 정리하고 암기하였다. 나의 경우 행정학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사회적 기업 부분이 최승호 선생님 논문 자료에 있어서 간단히 정리를 해 두었는데, 실제로 행정학 1문에서 사회적 기업이 출제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정치학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주제, 국제정치학에서 미중관계 부분을 보다 심화하여 정리하였고, 정치학 1문에서 국제관계와 한국의 전략을 묻는 질문이 나와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진도별 강의내용(진도별 핵심논점)

강의회차	날짜	강의 내용(※단일 주제가 아닌 복합 주제)	시험
■ 제 1 회	5월 16일(월)	민주주의 1, 대의제 민주주의와 대안적 민주주의 - 이론과 현실	
■ 제 2 회	5월 17일(화)	민주주의 2,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 이론과 현실	0
■ 제 3 회	5월 18일(수)	권력구조(정부형태), 이론	0
■ 제 4 회	5월 19일(목)	권력구조(정부형태), 현실(한국 권력구조 방향성)	0
■ 제 5 회	5월 20일(금)	정당체계, 이론	0
■ 제 6 회	5월 21일(토)	정당체계, 현실(한국 정당체계 방향성)	0
■ 제 7 회	5월 23일(월)	선거제도, 이론과 현실	0
■ 제 8 회	5월 24일(화)	정치문화, 이론과 현실	0
■ 제 9 회	5월 25일(수)	자본주의 1,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관계	0
■ 제 10 회	5월 26일(목)	자본주의 2, 한국 자본주의 방향성	0
■ 제 11 회	5월 27일(금)	정치철학 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0
■ 제 12 회	5월 28일(토)	정치철학 2, 공화주의	0
■ 제 13 회	5월 30일(월)	정치학 접근방법과 정치의 새로운 영역	0
■ 제 14 회	5월 31일(화)	국제관계 1, 세계 차원	0
■ 제 15 회	6월 1일(수)	국제관계 2, 동아시아 차원	0
■ 제 16 회	6월 2일(목)	국제관계 3, 남북 차원	

※ 수업 내용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